

Vol.138

HANSEN 한센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2026 9·10 월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HARMONY — 한센가족과 HARMONY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HOPE —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HAPPINESS —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비전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미션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사업목표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사업소개

-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 한센인 **복지사업**
- 한센인 **인권증진 사업**
- 기획·홍보 **사업**

Mapp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총연합회 공식 SNS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CONTENTS

한센포커스

02 **인사말**
- 서로를 살피며, 함께 웃기를

04 **스페셜 리포트**
- 임시이사회

05 **한센 리포트**
- 치매예방교육
-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한센인 구술 기록화
- 사회적 가치 페스타(칠곡마을)
- 소록도교회 역사 100주년 기념관 완공
- 대중매체 모니터링
- 축산경영교육
- 시도지부장회의
- 2026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한센탐방

29 **지부는 지금**
- 광주·전남지부
- 울산·경남지부

33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36 **한국IDEA협회**

한센공감

38 **소통하는 한센**
- 아름다운 마음이 모인 50년, '미라회'

한센이모저모

40 **한센병 바로알기**
- 한센병, 궁금해요!
-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44 **정보알리미**
- '뇌졸중'의 모든 것
- 2027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7 질병관리청 예산안
- 요즘이책

60 **독자들의 공간**
- 치매 예방 학습자료
- 한센 게시판
-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제24권 제5호 통권 제138호 **발행일** 2026년 9·10월호 **발행인** 이길용 **편집인** 우홍선 **발행처**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전화 1566-2339 **팩스** 1566-2032 **홈페이지** www.hansenkorea.org
이메일 hansen@hansenkorea.org **디자인&인쇄** 디자인앰퍼샌드 격월간 비매품
※「한센」은 일반회계(국고지원)의 지원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서로를 살피며, 함께 웃기를



한센 회원 및 함께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어느덧 계절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더 가지는 것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건강과 웃음,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전하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 가족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일상의 즐거움을 찾도록 돕고,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축산경영교육 역시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마음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 서로를 살피는 마음만큼 따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힘이 되고, 작은 웃음 하나도 서로 나누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총연합회가 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웃음을 더해드리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한센인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구술 기록화 사업을 통해 세월이 지나면 사람의 기억도 희미해지지만, 우리가 함께 기록하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과 역사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만을 바라보기보다 그 시간을 견뎌온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센 회원 및 함께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신뢰는 서로를 든든하게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진실한 말과 행동은 신뢰를 쌓아가지만, 거짓과 오해는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손을 내밀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진실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총연합회도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곳을 살피며,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마시고, 오늘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워도 한세상, 좋아도 한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 한센 가족 모두가 웃음 가득하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 길 용**



임시이사회 개최

지난 9월 14일 총연합회는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센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성원 보고를 시작으로 ▲추진 사업 보고 ▲부의안건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한센 가족 피해 보상 현황을 보고하고, 아직 청구 시한이 남아 있는 만큼 대상자들이 보상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센인 격리 정책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한센인 2세의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한센특별법 개정 관련 사항을 공유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길용 회장은 “우리 총연합회의 최우선 목표는 언제나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 한센인의 권리 증진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임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센인 2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도 힘쓰겠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이사회를 통해 총연합회는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공유하였으며, 앞으로도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치매예방교육

- 희망마을·재생마을 교육 -



총연합회는 한센인의 노년 인지 건강 증진을 위한 하반기 치매예방교육을 시작하였다. 희망마을(대표 여기혁)은 9월 4일, 재생마을(대표 정복열)은 9월 9일 각각 교육을 개강하고, 경로당에서 15회기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뇌 건강과 신체 건강을 함께 관리하며 치매를 예방하고, 한센인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다양한 인지 놀이를 병행하여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치매 예방 체조와 전신 운동, 인지 자극 교구를 활용한 인지 활동 및 인지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각 마을에서는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체가 불편한 참여자도 위축되지 않고 교육에 함께할 수 있도록 보조강사를 배치하여 개별적인 참여를 돕고 있으며, 참여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한센인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마을 교육 참여자는 “선생님들이 마을에 찾아와 즐겁게 교육해 주셔서 앞으로 진행될 교육도 기대된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길용 회장은 “전국의 한센인 정착마을에서 치매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치매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뇌 건강과 신체 건강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한센인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한센인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인지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희망마을 치매예방교육









재생마을 치매예방교육















낙상 예방과 즐거운 노년 생활교육

총연합회는 노년의 삶에 꼭 필요한 건강관리와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법, 노후의 행복감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센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부평마을(대표 김희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을과 겨울철에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포함한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을 마련하고, 지난 9월 2일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건강증진과 낙상 예방,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 행복한 노년 등 3개 과목으로 구성해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건강증진과 낙상 예방 교육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력과 균형감각을 강화하고, 낙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과 건강관리 방법을 익힌다. 특히 낙상 위험에 주의가 필요한 한센인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 과정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스마트폰과 무인 키오스크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기 쉽게 익히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고 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행복한 노년 과정에서는 자존감 향상과 삶의 행복을 주제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고, 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교육에 참여한 부평마을 어르신은 “혼자서는 운동하기 힘들었는데 강사님과 함께 웃으며 운동하니 즐겁고 운동 효과도 더 좋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즐겁게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총연합회는 건강관리와 생활교육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센인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동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과 점검으로 지키는 안전한 이동

- 거창·금호마을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총연합회는 9월 30일 거창마을(대표 신동은)과 금호마을(대표 곽선미)을 찾아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한센인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전동스쿠터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수리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고령과 한센병으로 인한 상흔 등으로 신체적 제약이 있어 전동보장구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전동보장구의 기본적인 조작 및 이용 방법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도로와 보행로 이용 시 주의사항, 주변 차량과 보행자 확인, 좁은 공간이나 경사로에서의 안전한 이동, 야간 및 우천 시 주의사항 등 실제 이동환경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주의뿐만 아니라 보장구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스쿠터를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고, 운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수리·정비했다.









평소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면서도 작은 이상이나 불편을 참고 이용했던 어르신들에게 이번 점검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또한 전문적인 점검을 받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전동보장구는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외출과 활동의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이동 수단이다. 안전교육과 점검이 우리 한센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안전관리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어르신들이 전동보장구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고, 일상 속 이동에 대한 불편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한센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한 사람의 기억에서 시작된 역사,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 다음 세대로 잇다

한센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여 한센병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적 자산으로 남기기 위한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이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센인의 역사는 질병과 치료,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라는 큰 틀에서 주로 기록되어 왔다. 그러나 한센인의 삶에는 공식적인 기록만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 '한센인 구술 기록화'는 한센인의 삶을 과거의 사건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그들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한센인 정착마을과 생활시설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듣고, 질병의 발병과 치료 과정뿐 아니라 가족관계, 생계와 노동,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차별과 편견, 피해 경험, 공동체의 변화 등 삶을 구성해 온 다양한 모습을 구술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록의 중심에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더라도 각자가 경험한 삶의 모습은 모두 같지 않다. 누군가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했고, 누군가는 지역사회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다. 또 누군가는 질병과 치료의 경험을 안고 살아왔으며, 다른 누군가는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해 왔다.

따라서 구술 기록은 한센인의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단순화하기보다,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술로 만나는 한센인의 삶

“어느 날 갑자기 평범했던 일상이 달라졌다.”

한센병은 한 청년의 평범한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직장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받고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검사 결과는 앞으로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누구보다 힘차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던 시기에 찾아온 한센병은 직장과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바꾸어 놓았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했다.”

한센병으로 몸이 약해졌지만 삶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결혼 이후 아픈 몸을 이끌고 생계를 위해 물을 나르고, 토끼를 키우고, 전기 공사를 하고, 사료 공장에서 일하는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병보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한센병이 발병한 후에는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병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은 일상 곳곳에서 느껴졌다. 특별한 말을 듣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빛과 행동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일도 조심스러워졌다.

구술 과정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선다. 한 사람의 기억 속에는 당시의 사회 모습과 한센인에 대한 인식,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계, 의료와 복지의 변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다. 한센인의 구술 기록이 한 개인의 생애를 넘어, 한센인이 살아온 시대와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기록인 이유다.

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기록으로 남겨진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다. ‘한센인 구술 기록화’는 바로 그 기억을 놓치지 않고, 한센인의 목소리로 한 시대의 삶과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과정이다.



칠곡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다

- 대한민국 자원봉사 활력포럼, 지역활력 우수사례 소개 -

총연합회는 9월 22일 서울 코엑스 Hall A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원봉사 활력포럼'에 참석해 한센인 정착마을인 칠곡마을의 사례를 지역활력 자원봉사의 우수사례로 함께 공유했다.

칠곡마을 사례는 한센병으로 인한 강제 이주 이후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되어 온 마을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며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목한 사례다. 칠곡군자원봉사센터는 관계 중심의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와의 관계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

총연합회는 이러한 칠곡마을의 사례를 지역활력 자원봉사의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한 논의에도 함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활력 자원봉사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칠곡마을을 중심으로 사회적 낙인과 고립의 문제를 살펴보고, 한센인 정착마을의 역사와 공동체를 기록·보존하는 일의 의미와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칠곡마을에서는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기록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기록관은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이어가고 세대 간 기억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칠곡마을 어르신들의 활기찬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마을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어 칠곡군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관계 중심의 자원봉사를 통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한센인 정착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주민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간다는 점에서 칠곡마을 사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다. 이는 단순히 한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오랜 시간 단절되었던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을의 기억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칠곡마을의 이야기가 지역활력과 자원봉사의 관점에서 소개되면서, 정착마을과 지역사회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이어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총연합회도 앞으로 칠곡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이 잊히지 않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록도교회 100년의 발자취, 100주년 기념관에 담다

소록도교회 100년의 역사와 신앙 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한 '소록도교회 100주년 역사기념관'이 완공됐다. 이를 기념하는 감사예배가 지난 9월 22일 소록도중앙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소록도교회 성도들과 관계자, 내빈들이 함께 모여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앞날을 향한 소망을 나눴다.

소록도교회의 역사는 1922년 10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록도 자혜의원에서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던 환자들의 요청으로 일본인 다나카 신자부로 목사가 초청돼 전도 집회를 열면서 소록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후 소록도에는 북성교회를 시작으로 남성교회, 신성교회, 동성교회, 중앙교회, 서성교회, 장성교회 등 일곱 교회가 세워지며 신앙공동체가 형성됐다.

당시 한센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심각한 편견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을 넘어, 한센인들이 서로를 돌보고 신앙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며 삶의 힘을 얻는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소록교회 초기 교인들

이번에 완공된 100주년 역사기념관에는 소록도교회 100년의 역사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과 유물이 전시됐다. 한센인 신앙공동체의 출발과 발전 과정은 물론 소록도 일곱 교회의 역사와 연합당회 자료, 찬양대 자료, 성도들이 사용했던 궤짝과 유물, 성경 필사 노트 등이 담겨 있어 질병과 소외,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성도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역사기념관은 소록도 남성교회 옛 예배당을 새롭게 단장한 공간을 비롯해 기도굴, 세미나실 및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조성됐다. 100주년 역사기념관 건립은 소록도교회 성도들과 출신 성도들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준비됐으며, 2023년 건립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완공됐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소록도교회 성도들과 관계자, 내빈 등이 참석해 기념관 완공을 함께 축하했다. 총연합회에서는 이길용 총연합회장이 참석해 소록도교회가 걸어온 100년의 역사와 신앙적 의미를 되새기며 축사를 전했다.



이길용 회장은 축사를 통해 “소록도는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상처가 깊이 새겨진 곳”이라며 “소록도교회의 100년 역사는 단순히 한 교회의 역사를 넘어,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삶으로 증명해 온 믿음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100주년 기념관을 통해 다음 세대가 소록도교회의 역사와 신앙의 유산을 배우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이어가는 귀한 공간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감사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은 역사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념식을 하고 기념관 곳곳을 둘러보며 소록도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함께 되새겼다. 특히 기념관에 보존된 기록과 유물을 통해 소록도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흔적을 살펴보고, 그 의미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100주년 역사기념관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과 유물을 보존하는 공간을 넘어, 소록도교회 성도들이 걸어온 삶과 신앙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이어가는 공간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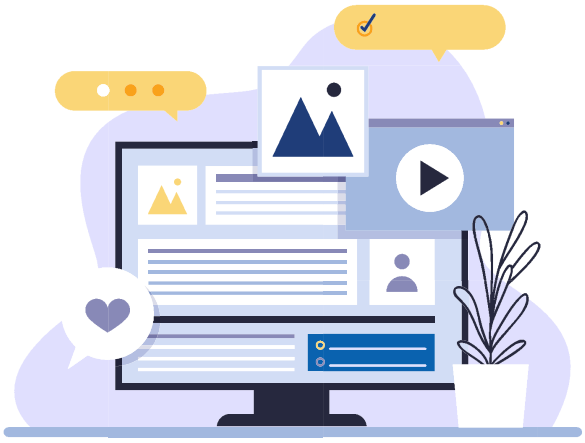
총연합회 역시 소록도 성도들이 남긴 삶과 정신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한센인들의 역사와 인권, 권익이 올바르게 기억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말을 바로잡는 일, 한센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담아낸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표현은 어느 순간 사회의 익숙한 인식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그러므로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함께 돌아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부정확한 정보나 차별적 비유 표현이 무심코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극적인 기사나 왜곡된 용어, 비하성 비유는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하며, 한센인 당사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물론 오래된 편견과 오해가 다시 고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총연합회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한센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언론과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용어를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 기사와 콘텐츠가 수정되고 관련 설명이 보완되는 등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소록도와 한센인에 대한 관심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지금의 시점을 맞아 미디어와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어 사용 및 정보 전달 방식을 더욱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센병과 소록도의 역사가 대중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한센인 당사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 및 오해의 시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올바른 용어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이슈를 넘어 올바른 언어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더해질 때, 오늘의 관심은 비로소 깊은 공감과 인권적 연대로 승화될 수 있다. 과거의 아픔을 바르게 기억하고 차별적 언어와 편견을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한센인의 존엄을 지켜내고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작은 표현 하나의 변화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달라진 시선은 결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한센인이 더 이상 질병에 대한 편견으로 평가받지 않고 자기 삶과 이름, 그리고 존엄으로 온전히 존중받는 사회. 우리 총연합회는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꾸준히 함께할 것이다.



2026년 8월~9월 대중매체 모니터링 현황 : 20건

언론사명	기사 발행일	기사 제목	수정 전 단어	수정 후 단어
경남도민일보	2026. 7. 31.	광대탈 쓰고 나니 근심·걱정 탈탈 [경남 무형유산을 찾아서]	문O이	문맥양해표현
아트인사이트	2026. 8. 1.	[Opinion] 누구의 편도 아닌 신 - 모노노케 히메 [영화]	나병환자	한센병환자
경남도민일보	2026. 8. 2.	[취재수첩] 마산오광대	문O이	문맥양해표현
엑스포츠뉴스	2026. 8. 3.	[단독] 하영, 조부는 안부호 교수 …평생 소록도서 나병환자 치료하며 헌신	나병연구	한센병연구
엑스포츠뉴스	2026. 8. 4.	'친일 의혹' 하영 측 "조부=한센병 연구 안부호..증조부=안상호 맞지만 논란 다른 부분도 有" [공식]	나병	한센병
스포츠큐	2026. 8. 5.	가족사가 던진 역풍, 하영·강동원·이지아의 다른 선택	나병	한센병
더벨	2026. 8. 6.	신원종합개발, '르엘 어퍼하우스' 본궤도에도 규제권	나환자	한센인
위키트리	2026. 8. 7.	하영 증조부 안상호 친일 의혹에 할아버지·아버지 이력에도 관심 집중	#나병	제거
엑스포츠뉴스	2026. 8. 8.	소재원, 하영에 또 일침… "소록도 가보시라, 당당한 조상을 두셨다면"	나병	한센병
인사이트	2026. 8. 9.	증조부 친일 의혹 하영, 조부는 안부호 …"평생 소록도서 한센병 환자 치료"	나병환자	한센병
부산일보	2026. 8. 10.	[단독] 강제 격리·귀국 차단 … 재일 한센인에 '광복'은 없었다	나병	한센병
스포츠큐	2026. 8. 12.	하영 집안 친일 논란, 자필 사과문 메시지는?	나병	한센병
크리스천투데이	2026. 8. 31.	반 고흐 예술의 위대함, 곤궁한 이웃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나병	한센병병기
아시아엔	2026. 9. 5.	BTS 'Dynamite' 빌보드 핫100 .... 조선일보 정간(1920)	나병환자	한센병환자
법보신문	2026. 9. 9.	7. 서기 7세기 - 당 태종 vs 송첸캄포	문O이	거렁뱅이
원예산업신문	2026. 9. 9.	몸을 이롭게 하는 원예·약용작물 - 188	문O병	양해 표현 첨부
부산일보	2026. 9. 10.	"돌아갈 곳이 없었다" … 스스로 불 붙여 생 마감한 조선인	나환자	한센병 환자
뉴스컬쳐	2026. 9. 11.	[전통N] 논어 '광자진취'가 춤이 될 때 … 일곱 편의 감정 서사	문O이춤	양해 표현 첨부
경북일보	2026. 9. 17.	[삼촌설] 이민자 나라 미국의 뒷면	나병	한센병
오마이뉴스	2026. 9. 21.	환자를 위해서? 그래도 '미프진'을 막진 못했다	나병	한센병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경영교육 추진

총연합회는 한센인 정착마을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정착마을 축산경영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축산 환경과 가축 질병 발생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 방법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지원을 받아 축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가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축산 관련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장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사례를 다뤄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총연합회는 현장 여건상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농가들도 교육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 형태의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교재도 함께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이 필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실제 농장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교육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에 니트릴장갑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는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농장 내 위생 관리와 방역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니트릴장갑은 축산 현장에서 위생 관리와 방역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물품으로, 농가의 방역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정착마을 축산농가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정보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정착마을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시도지부장회의 개최

총연합회는 10월 15일 부산에서 전국 시도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각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길용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해 지역별 활동 현황과 한센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지역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한센인들이 생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지부와 총연합회 간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한센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길용 회장은 “지역 현장에서 한센인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고 있는 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총연합회와 각 지부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센인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2026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개최 예정

‘2026 대한민국 한센인대회’가 오는 12월 10일 개최된다. 대한민국 한센인대회는 우리 사회의 한센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 한센인 간 화합 및 편견 해소를 통해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 한센인(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한 해 동안 노력해 온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부문별 한센대상을 수여한다. 한센인의 권익 증진과 인식 개선에 기여한 활동을 널리 알리고,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2026년 한 해 동안 총연합회가 추진한 주요 한센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동영상도 상영된다.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고, 한센인과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내용을 함께 소개한다.

이와 함께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고, 한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편견으로 한센인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한센인과 가족을 비롯해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정부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한다. 한 해 동안 한센인과 함께해 온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연합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센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 · 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 · 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2 보상 청구의 내용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9. 11. 21.까지(한시법)

3 보상 대상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청구자)는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
- 대상자는 1945. 8. 15.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 원환자는 1945. 8. 15.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❶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 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❷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❸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❹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❺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 2026. 10. 21. 기준 151명의 서류를 일본에 송부하였고, 147명이 보상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상 심의 중
-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 청구인이 고령자이므로 신속하게 서류 준비 필요(청구인은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야 함)

문의사항	한국한센총연합회
전 화	1566-2339 / 팩스 : 1566-2032

작은 편견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사회

함께 만들어갑니다.

차별이 아닌 존중으로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존중으로
한센인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주세요.

함께하는 관심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차별 없는 사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故 육영수 여사 서거 52주기 추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지재운)는 8월 14일 현애마을(대표 허인선)에서 故 육영수 여사 서거 52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지재운 광주·전남지부장을 비롯해 정구성 밀알중앙회 부총재, 이인호 광산밀알회장, 이래홍 밀알중앙회 총재, 허인선 현애마을 대표 및 마을 위원 등이 참석해 故 육영수 여사의 서거 52주기를 함께 추모했다.

참석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갖고, 뜻깊은 추모의 마음을 함께 나눴다. 또한 현애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인연과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등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전남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한센가족의 화합의 장

- 제16회 경남 한센가족의 날 -

울산·경남지부(지부장 이상용)는 8월 27일 산청실내체육관에서 한센인과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경남 한센가족의 날'을 개최하였다.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한국한센총연합회 울산·경남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센인과 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화합하며 공동체의 유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김신호 경상남도 보건의료국장, 신종철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 성흥택 산청군 부군수, 권은희 산청군의회 부의장 등 관계자와 경남지역 한센인 및 가족들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총연합회 우홍선 사무총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개회사, 격려사, 영상축사,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한센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기념식

오후에는 가족의 날 축제 한마당이 마련되어 피구와 윷놀이 등 다양한 화합행사와 행운권 추첨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상용 울산·경남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랜 세월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켜온 한센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한센가족의 날이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울산·경남지부가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한센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다.”라는 뜻을 전하였다.

이길용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센인들이 오랜 시간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삶을 이어온 데 대해 격려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한센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인권·복지 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총연합회가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센인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구술 기록화 사업과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등을 소개하며, “한센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총연합회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행사 진행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에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그동안 함께해 온 정을 나누며 한센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16회 경남 한센가족의 날은 한센가족이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온 시간을 돌아 보고, 건강과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최근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거제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하였다.



▲표창장 수여



▲감사장 수여



▲기념사진



▲가족의 날 축제 한마당(피구)



▲가족의 날 축제 한마당(윷놀이)



▲행운권 추첨

일상 속 따뜻한 온기와 즐거움이 함께하는 …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센터장 송정하)에서는 입소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인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까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만든다.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문화 체험

8월 12일에는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공방이 함께하는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문화 체험이 진행됐다. 오창읍 원리여천길에 있는 '마타나 도자기 공방'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입소자들은 흙을 직접 만지고 빚으며 자신만의 컵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방 강사의 지도와 시설 및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의 세심한 보조 속에서 참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해 나가며 성취감을 느꼈다. 완성된 도자기는 약 4주간의 가마 소성 과정을 거쳐 전달됐다.

특별한 체험만큼이나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도 센터의 소중한 풍경이다. 어느 날에는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이 거실에 도란도란 모여 앉아 직접 기른 고구마순을 함께 다듬었다. 하나하나 줄기의 껍질을 벗기고 잎을 다듬는 어르신들의 손길에는 오랜 세월 쌓인 익숙함과 정성이 묻어났다.

곁에서 함께 손을 보태는 직원들의 미소와 담소가 어우러진 거실은 마치 정겨운 시골집 마당을 떠올리게 했다. 고구마순을 다듬던 한 어르신은 직원에게 “이건 요렇게 깔끔하게 까야 맛있는 법이여”라며 자신만의 손질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서로 팁을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이 시간은 단순히 식재료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채우는 따뜻한 일상의 한 장면이 되었다.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8월 31일에는 다양한 무늬와 색깔의 양말과 장갑 카드를 활용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참여자들은 점박이, 줄무늬, 하트, 체크무늬 등 서로 다른 패턴의 카드를 살펴보며 같은 짝을 찾고, 찾은 양말과 장갑을 집게로 줄에 걸어보는 활동에 참여했다. 카드를 비교하고 짝을 맞추는 과정에서 집중력을 기르고, 집게를 손가락으로 잡고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소근육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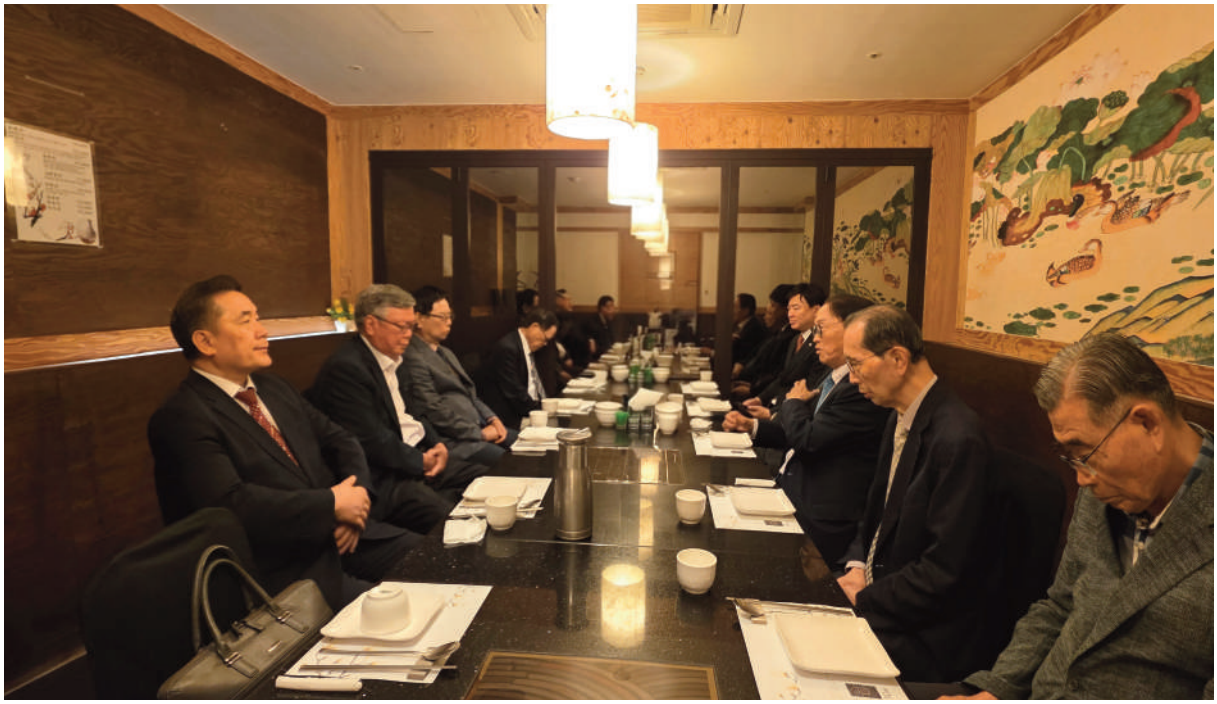




▲양말과 장갑을 이용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

이처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문화체험부터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일상의 순간,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소자들이 즐겁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입소자들이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도 재정위원회 개최

한국IDEA협회(회장 정상권)는 지난 9월 10일 오전 11시, 용산역 기와에서 협회 고문, 공동회장, 재정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예배는 선교국장 조용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문 이호영 장로의 기도에 이어 조용환 목사가 '인생의 해답'(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주제로 설교했다.

예배 후 진행된 회의에서 정상권 회장은 인사를 통해 "IDEA협회는 연 4회의 정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라며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재정위원들과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선교지 방문 계획을 보고하고 ▲2026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6년도 운영위원회 결산총회 개최 일정 ▲2026년도 후원의 날 개최 일정 ▲IDEA 봉사상 수상자 추천의 건 등을 검토·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위원 결산총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심의하고 재정위원들의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개최될 운영위원 결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한국IDEA협회는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운영위원 결산총회와 후원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6년도 운영위원 결산총회

일시: 10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 1층 소회의실(종로5가)

2026년도 후원의 날

일시: 11월 6일(금) 오전 11시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



아름다운 마음이 모인 50년, '미라회'



▲2006년 미라회 3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미라회 회원들 모습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한센인들과 중증 장애인들을 가족처럼 돌봐온 경남 산청 성심원. 이 성심원과 함께 걸어온 후원회인 미라회(美羅會)가 50주년을 맞는다.

미라회의 시작

산청성심원은 1959년 작은 형제회가 한센인과 중증 장애인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설립한 시설이다. 설립 초기에는 해외 원조에 의존했으나 1970년대부터 국내 후원자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후원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후원자들은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만들었고, 1976년 '미라회(美羅會)'를 설립하였다. '미라회'라는 이름에는 후원자들의 마음이 나열되어 아름다움을 만드는 모임이라는 뜻을 담았다.

미라회의 역할

미라회는 설립 이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청 성심원 가족들과 함께해 왔다. 미라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한센인들의 의·식·주를 비롯해 자녀 양육과 생활 지원 등에 사용되며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후원에 그치지 않고 회원들이 직접 성심원을 찾아 한센인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물질적인 나눔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후원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이어왔다.

50년을 이어온 나눔

1976년 시작된 미라회의 나눔은 올해로 50년을 맞았다. 현재 전국에서 약 2,500명의 후원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들도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미라회의 나눔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한센인과 성심원 가족들의 삶에 꾸준히 관심을 보내고 함께해 온 연대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성심원은 미라회와 함께 걸어온 지난 50년을 기념하며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라회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사진 전시회와 개회식, 음악회, 감사미사 등을 통해 미라회와 성심원이 함께 걸어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지난 50년의 나눔과 연대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50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심원 가족들의 곁을 지켜온 미라회. 오랜 시간 이어진 따뜻한 나눔과 연대가 앞으로도 한센인과 소외된 이웃의 삶에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센병 바로 알기

한센병이란?

- 나균에 의한 만성감염병이지만 나균에 대한 면역기능이 아주 약한 경우에만 발생되고,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한센병 증상

-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피부가 퇴색되거나 붉은색 등으로 침착된 반점이 나타납니다.
- 가렵지는 않지만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아프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 상처나 화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피부 병소가 생기기 전에 신체의 주요 신경을 잠식하여 신경통 증상으로 임파선이 붓고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증상이 오래될 경우 손가락, 발가락 등에 힘이 없고 구부러지기도 하며 눈썹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센병 치료시 주의사항

- 처방약물은 규칙적이고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 약물투약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지러움, 피부염, 피부착색, 오심, 설사, 위장장애, 두통, 현기증, 불면 등)
- 기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중단하고 진료 받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한센병 관리를 위한 권고처방은 다양합니다. 담당 선생님과 의논 후 투약처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권고처방을 통한 정확하고 빠른 한센병 치료로 최상의 치료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Q&A

Q1 한센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아니오.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Q2 부정군(不定群)나는 무엇을 말하나요?

- 한센병의 한 개 또는 소수의 명확하지 않는 병변이 나타나며, 피부반점이 얼굴, 사지, 엉덩이 등에 발생하며 감각소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부정군나의 증세는 향후 결핵양형나 또는 나종형나로 진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연 치유되기도 합니다.

Q3 한센병의 나반응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센병의 면역학적 변화에 따른 급성 염증 반응이며,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합니다. 나반응은 새로운 감염 없이 급성염증이 때로 심하여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환자의 약 25%에서 관찰됩니다.

Q4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며,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한센병은 답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등의 약물을 병용하여 치료합니다. 이 치료를 적기에 하게 되면 조기에 나균이 사멸 되어 한센병이 완치됩니다.

자료출처 : 2026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놓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1 요양·돌봄 서비스 지원

☑ 대상자: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제공내용: 일상생활 지원 및 요양(돌봄)서비스
☑ 제공기관

기관명	지역	입소 당담
성라자로마을	경기 의왕시	031-452-5655
여수애양평안요양소	전남 여수시	061-682-9595
안동성좌원	경북 안동시	054-852-1448
산청성심원	경남 산청군	055-973-6966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충북 오창읍	043-241-1300

☑ 입소비 발생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일부 시설의 경우 입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2 생계비 지원

☑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생활시설 및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제외

☑ 제공내용: 매달 약19만원(2025년 기준) 지원(본인통장)
☑ 제공기관: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3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

☑ 대상자: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공내용 및 제공기관
- 연구원: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 등 지원
- 연구원·지부: 의수족, 보조기, 족지, 특수화 등 맞춤형 제작 지원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진료받는 복지협회 문의

4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한센인 복지 사업: 찾아가는 문화복지, 한센인 합동결혼식, 우리마을 행복사진관(장수사진),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 기획·홍보 사업: 한센인 구술 기록화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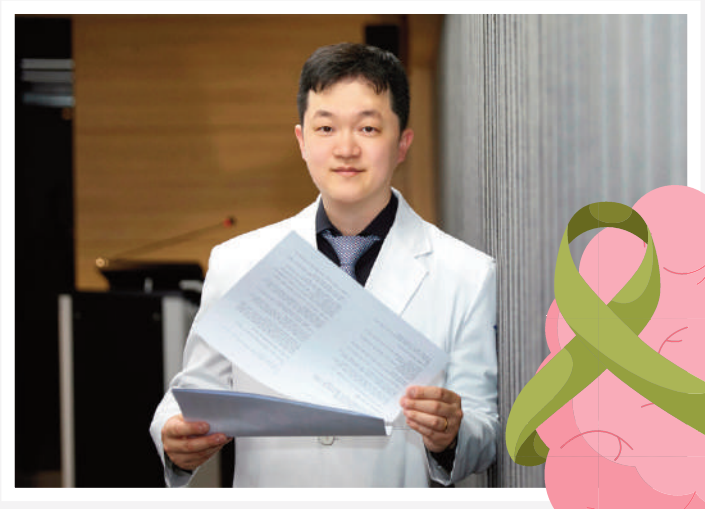
5 피해보상 청구

☑ 대상자: 일제 강점기하 가족(2세, 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피해자
☑ 제공내용: 피해보상 청구 관련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페이지 참조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지원 안내문' 홍보물

혈류가 끊기는 순간 일어나는 일,
'뇌졸중'의 모든 것

글. 정유미 / 사진. 안용길 / 영상. 최의인
[출처 : 경희의료원보 프러포즈 2026년 여름호 VOL. 458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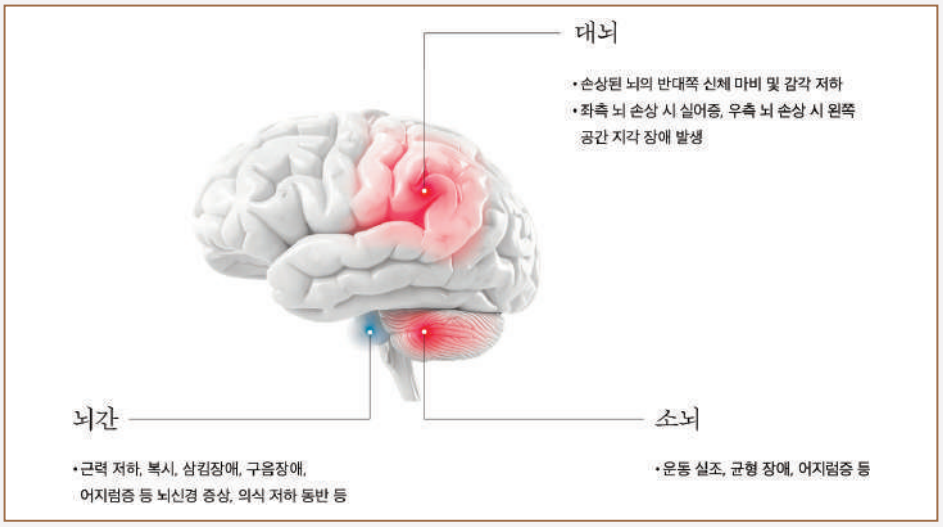
우호걸 교수(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전문 진료분야

뇌졸중, 뇌혈관 및 경동맥 협착 중재치료, 두통

뇌졸중은 뇌혈관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학적 질환으로, 4대 신경계 질환 중 하나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허혈성 뇌졸중) 혈관이 터지면서(출혈성 뇌졸중) 뇌조직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면 손상이 발생하는데, 치료가 늦어질수록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감소한다.



뇌 손상 위치에 따른 뇌졸중 증상

Q1 뇌졸중은 어떤 질환인가요?

뇌 전반에는 혈관이 분포하고 있고, 어느 혈관에서든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순간,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류가 즉시 차단되면서 수초에서 수분내에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합니다. 손상 위치에 따라 증상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한쪽 팔·다리의 갑작스러운 마비 또는 근력 저하, 한쪽 안면 마비,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등이며, 균형장애 및 보행 이상, 시야장애,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및 어지럼증, 의식 저하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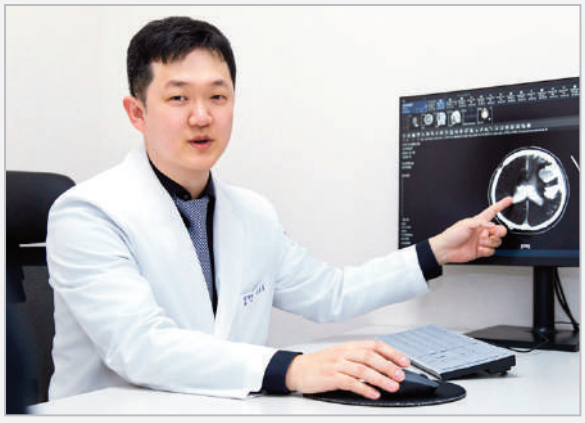
뇌졸중은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다양한 위험요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뇌졸중이 언제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하거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및 죽상동맥경화, 흡연, 심장질환, 비만, 고령 등입니다. 또한 경동맥 협착과 수면무호흡증은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Q2 뇌졸중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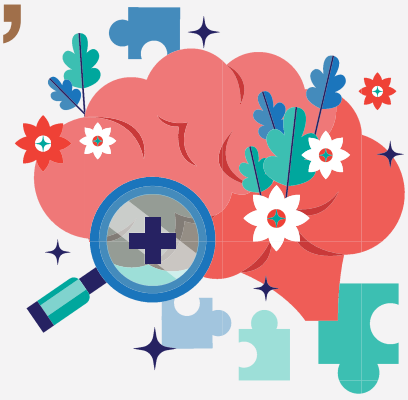
뇌졸중은 빠른 진단이 중요한 응급질환으로, 임상증상 평가와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증상 발생 시점과 신경학적 증상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뇌 CT 검사를 통해 뇌출혈과 뇌경색을 구분하고, 뇌혈관 및 관류 CT를 이용해 어떤 혈관의 이상으로 뇌졸중이 발생했는지, 뇌세포를 얼마나 살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뇌혈관 치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뇌졸중 치료의 핵심 목표는 손상된 뇌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고, 추가 손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허혈성 뇌졸중은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하고, 출혈성 뇌졸중은 터진 혈관에서의 출혈을 막고 뇌압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하며, 혈전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를 투여합니다. 또한, 터진 혈관에서의 출혈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로 혈종을 제거하거나 혈관을 봉합하고, 시술로 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나아가 혈압조절 및 뇌압조절을 시행합니다.



"뇌졸중은 치료 이후에도 운동 마비, 감각 이상, 언어장애, 발음장애, 삼킴장애, 인지기능 저하, 정서적 변화 등 다양한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Q3 뇌졸중 치료에서 골든타임이란?

손상된 뇌조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치료 가능 시간'을 의미합니다. 혈류가 차단되면 뇌세포는 빠르게 손상되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질수록 회복 가능성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를 흔히 'Time is brain'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맥 내 혈전용해술은 증상 발생 후 약 4.5시간 이내에 시행되며, 기계적 혈전제거술은 환자에 따라 최대 6~24시간 이내에 시행할 수 있고, 빠를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뇌출혈은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후유증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출혈 발생 후 수 시간 이내에 혈종이 확장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후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Q4 치료 후 후유증과 재발 관리가 궁금합니다.

뇌졸중은 치료 이후에도 운동 마비, 감각 이상, 언어장애, 발음장애, 삼킴장애, 인지기능 저하, 정서적 변화 등 다양한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손상된 기능을 최대한 회복하고, 남아 있는 기능을 활용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과정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서적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재발 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 내 약 3%, 1년 내 약 5%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재발할 경우 이전보다 심한 신경학적 손상과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재발 예방을 위해서는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임의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통한 추적 관찰, 혈압과 혈당 등 위험인자 관리,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방문 등이 필수입니다.

FACT & ACTION

■ 최적의 다학제 시스템과 연구 역량

뇌졸중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진 한 사람의 역량을 넘어 유기적인 팀워크가 필수적이다. 경희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의 전문의가 함께 모여 최적의 치료 방침을 논의하는 다학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진료과 간 긴밀한 협진이 뇌졸중 치료 성과를 높이는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팀워크를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도 뛰어나다.

신경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 연구진 협력으로, 첨단영상기법을 활용해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의 발생 혈류역학 기전을 규명하고, 뇌동맥류 파열 위험을 예측하는 등 중요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학술대회 수상으로 이어진 바 있다. 또한, 재활의학과와 함께 언어장애를 가진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언어재활 치료 관련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다.

FACT CHECK 뇌졸중 바로 알기

■ 미니 뇌졸중은 작은 뇌졸중이다?

Ⓥ '미니 뇌졸중'이라 불리는 일과성 허혈발작은 뇌혈류의 일시적인 감소 또는 차단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했다가 짧은 시간 내 회복되는 상태를 말한다. 뇌졸중과 유사하게 한쪽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등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이는 증상이 경미하다는 뜻이 아니며 단기간 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이다. 신속한 평가와 예방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 술 안 마시고 혈압 정상인데, 뇌졸중이 올 수 있다?

Ⓥ 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등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뇌졸중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있다.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이나 심근경색 발병 경험, 심장판막 이상 등이 대표적이다.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혈압이 정상이고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뇌경색 발병을 주의해야 한다.

* 심방세동: 심방이 정상 수축을 벗어나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리는(세동) 부정맥 현상

FAST 법칙으로 확인하는 '뇌졸중 전조증상'



‘더 두텁게, 더 든든하게’ 2027 보건복지 예산안

- 148.7조원 규모 예산 편성... 사회안전망·지역의료·돌봄 강화 -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핵심내용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697억 원 규모, 전년 대비 8.2% 증가
- 미래대응기금 포함 시 152조 4,328억 원 규모
-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기초연금 예산 11% 증액
- 1조 2,600억 원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취약지 돌봄 기반 확충
- 돌봄로봇·AI 등 보건·복지 분야 디지털 전환 추진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148조 7,69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이는 2026년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규모이며, 미래대응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에 이른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

Ⅴ 생계·의료급여 강화: 최저생활 보장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07만 8천 원에서 221만 7천 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약 3만 명 확대하고, 기본진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Ⅴ 기초연금 확대: 저소득층 중심으로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금 총예산을 2026년 23조 1천억 원에서 2027년 25조 7천억 원으로 11% 증액한다.

특히 소득 하위 30%에 대한 차등지원을 확대하고, 부부가구의 감액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개편 항목	현행(2026년)	개편안(2027년)	핵심 지원 혜택
하후 차등지급	정액 지급(35만 원)	하위 0~30% 차등 지원(348만 명)	최대 12만 4천 원 추가 지원(부부가구 기준 56만→68만 4천 원)
부부감액 축소	20% 감액	저소득층 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	부부 수급자 감액 부담 완화
직역연금 수급자	원천 배제(0원)	저소득층 포함 (11만 명)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지원

Ⅴ 자활사업 확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만 2천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3.7% 인상한다.

Ⅴ 위기가구 긴급 지원: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고립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Ⅴ 현장 밀착형 복지 확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위기가구를 처음 방문해 상담할 때 2만 5천 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를 도입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한다.

▣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2027년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Ⅴ 지역 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신설하고 계약형 의사와 시니어 의사 제도를 확대하는 등 약 1,150명의 지역 의료인력을 육성·지원한다.

구분	지원 대상 및 규모	주요 지원 내용
지역 의사 선발 전형	490명 (신규)	지역 10년 의무복무 조건 등록금·주거비 등 지원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	136명→448명 (전국 확대, 서울 제외)	지역 필수과목 전문의 장기근속 및 처우 개선 지원
시니어 의사 채용	160명→220명 (+60명 확대)	퇴직·은퇴 전문의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재취업 지원

Ⅴ 거점·공공병원 육성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진료시설 구축과 필수의료 운영비 등을 지원해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장애인·노인 지원 강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 기반을 강화한다.

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의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또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설치한다.

Ⅴ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 약 26만 7천 명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도 9천 명 확대하고, 활동지원 단가는 시간당 17,960원으로 4.0% 인상한다.

Ⅴ 노인 돌봄 및 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도 1,341명으로 늘려 노인일자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12개 유형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인건비를 7.0% 인상해 총 1조 54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업무 강도가 높은 10개 직군에는 공통 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해 4.9% 인상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 분야 디지털 전환 추진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을 보건·복지 분야에 접목해 돌봄과 의료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인다.

Ⅴ 돌봄 기술 혁신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돌봄로봇 관련 사업에 377억 원, 돌봄기술 연구개발(R&D)에 145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Ⅴ AI 기반 의료서비스 확대

구급대와 병원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AI 서비스와 의료영상 QR 공유 등 디지털 의료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을 구축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2027년, 더욱 촘촘해지는 보건복지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부터 지역의료, 통합돌봄, 장애인·노인 지원까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염병부터 만성질환까지’ 2027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1조 4,347억 원 규모 예산 편성… 감염병 예방·관리와 만성·희귀질환 관리 강화

[출처: 질병관리청]

예산 1조 3,359억 원보다 988억 원(7.4%)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 예산안은 차기 팬데믹에 대비한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가예방접종과 상시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질환·희귀질환 예방과 관리, 건강위해 대응 및 보건의료 연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가운데 일상생활과 건강관리에 참고할 만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상시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을 비롯해 의료관련감염과 항생제 내성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결합백신(PCV)으로 전환한다. 2027년 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은 418억 원으로, 2026년 136억 원에서 크게 확대된다. 질병관리질병관리청은 2027년도 예산안으로 1조 4,347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2026년 청은 단백결합백신이 기존 백신에 비해 폐렴 예방효과의 범위가 넓고 장기적인 면역 기억이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의료관련감염 관리에는 77억 원을 편성해 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을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고, 다제내성균 특화병원 6개소를 신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에는 3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연구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해 감염병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신종·변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감시와 검사, 의료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대상기관을 기존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하고, 특히 요양병원을 감시 대상에 포함해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기반을 강화한다.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수도권 중심 9개소에서 지역을 포함한 15개소로 확대하고, 민간 감염병 검사 관리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2027년 상반기 개원을 지원하고,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체계를 통합·정비한다. 국가 감염병 병상은 기존 706병상에서 1,208병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진 등 대응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보호구와 항바이러스제 비축에도 각각 50억 원과 255억 원을 편성하였다.

▣ 만성질환·희귀질환과 노쇠 예방 강화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확대한다. 운영 지역도 기존 19개 시·군·구에서 29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향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희귀질환 진단지원은 기존 1,150건에서 2,713건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19개소에서 21개소로 늘린다.

또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027년에는 극희귀·기타염색체질환 및 간병비 등 지원질환부터 적용하고, 2028년 이후에는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국가 노쇠관리 표준 평가체계 구축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2027년에는 1억 6천만 원을 편성해 근거 기반 노쇠 표준 모델 개발·보급과 노쇠 현황 분석,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 건강위협에 대비

질병관리청의 주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감염병·예방접종·만성질환·보건연구 등 다양한 질병 관련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팬데믹 발생에 대비한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은 2026년 264억 원에서 2027년 405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백신 개발지원 80억 원과 미래감염병 mRNA 항체치료제 개발지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백신 연구개발과 미래 정밀의료를 위한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 초고령사회 대응 건강노화 연구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한눈에 보는 2027년 질병관리청 주요 예산안

분야	주요예산	주요내용
상시감염병 예방·관리	국가예방접종5,173억원	예방접종대상확대및백신전환
	의료관련감염77억원	CRE 감염증관리및다제내성균대응강화
	항생제내성37억원	항생제내성예방·관리강화
	감염병예방관리및지원5억원	감염병예방관리기본계획·법령관련연구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감시체계33억원	호흡기감염병감시기관확대
	생물테러대비28억원	국산탄저백신허가유지·갱신연구
	비축물자확충305억원	개인보호구·항바이러스제비축
	진단검사역량5.6억원	감염병검사기관확대및관리체계구축
	의료대응체계253억원	감염병전문병원·국가감염병병상운영
	매개체감시·조사4.7억원	AI 기반감시·방제및해외유입매개체감시
만성·희귀질환 ·건강위해관리	만성질환예방관리72억원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확대
	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1.6억원	국가노쇠관리표준평가체계구축
	희귀질환자지원73억원	진단지원·전문기관확대 및 의료비지원기준완화
	비감염성건강위해대응4억원	온열질환감시·예측및폭염피해심층감시
미래건강위협 대비연구	질병데이터ON 2억원	질병관리청주요데이터통합활용기반마련
	미래의료기술연구46억원	AI 기반헬스케어연구
	연구기반187억원	첨단연구장비및건강노화연구기반구축
	백신·치료제개발500억원	mRNA 백신·항체치료제 및 국가전략백신개발

2027년, 감염병 대응부터 건강관리까지

2027년 질병관리청 예산안은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만성·희귀질환 및 노쇠 예방 등 국민의 건강관리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질병관리청은 차기 팬데믹 위협과 일상 속 다양한 건강위협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요즘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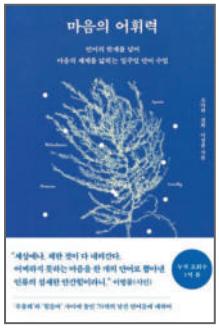
오래 곁에 두어 좋은 말

100년의 문학 작품에서 길어 올린 마음들

2026년은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년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해 단어를 모으는 사람, 나민애 서울대 교수가 지난 100년간 한국 문학 작품 속 단어들을 톺아보며 142명 작가의 142개 단어를 모으고 그 안에 담긴 마음들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단어는 시대에 따라 사라지거나 생기기도 하고, 의미가 바뀌거나 쓰임이 추가되기도 하며, 잊혔다가도 되살아나는 등 진화와 변화를 거듭한다. 또한 한 시절을 풍미한 단어는 그 자체로 사회의 단면이 된다. 이런 변화를 가장 내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곳이 다름 아닌 문학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문학은 그 시대의 사람과 사회에 깊이 틈입해 형성된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제 함께 단어를 모으는 마음으로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자. 익숙한 단어에는 나만의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금 낯설지만 자꾸 시선이 머무는 단어 앞에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도 좋겠다. 이 단어들 가운데 분명 당신의 단어도 있을 것이다.



마음의 어휘력

같은 슬픔도 수십 개의 이름으로 안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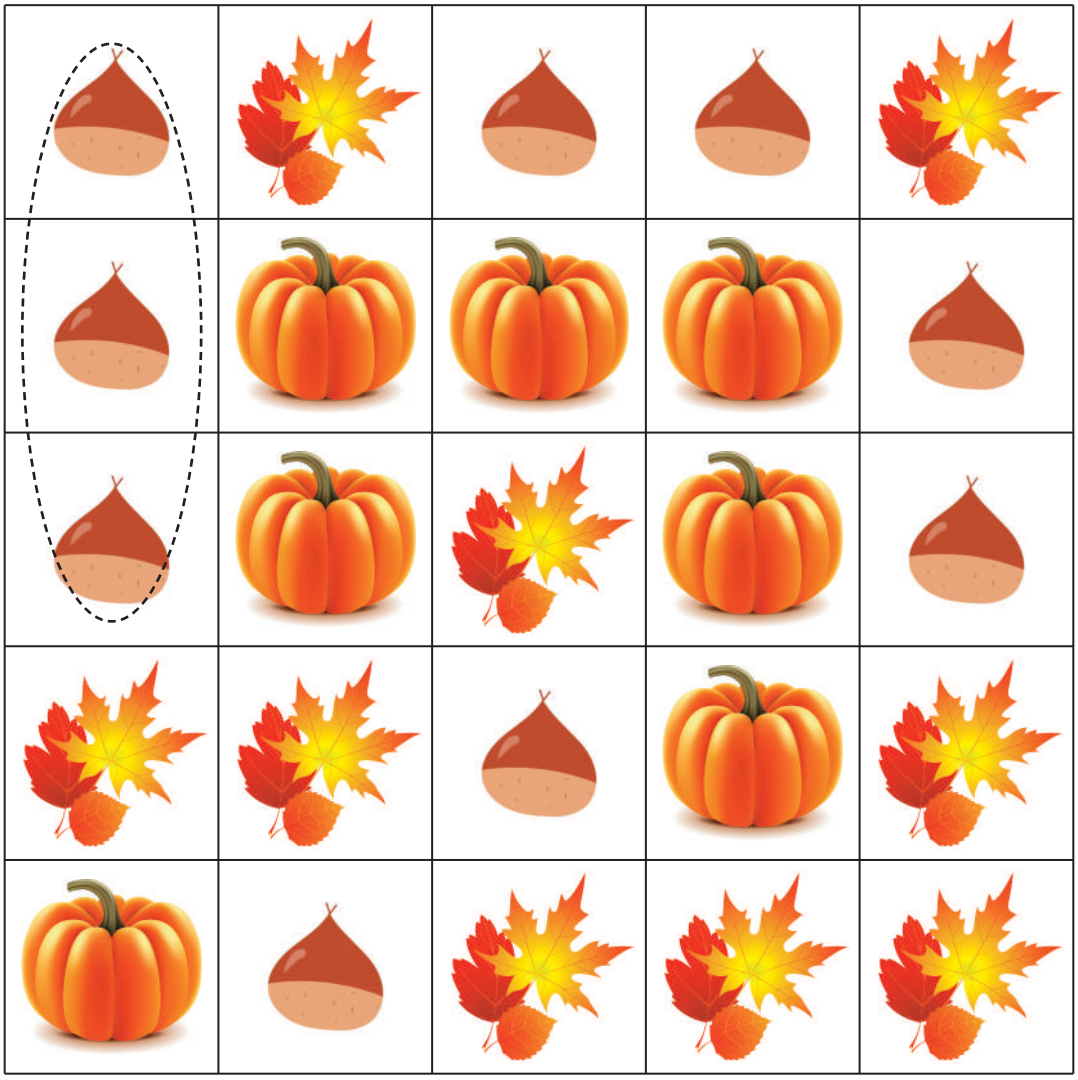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일렁이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늘 몇 개뿐이다. 서운함도, 억울함도, 무기력함도 결국 "짜증 나" 한마디에 눌러 담곤 한다. 심리학에는 감정을 정확히 쪼개어 이름 붙이는 '감정 세분화(Emotional Granularity)'라는 개념이 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된다.

이 책에는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70개의 단어를 담았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 감정의 흐름에 따라 단어를 구성하고, 그리스어·일본어·독일어·스웨덴어·태국어 등 세계 각국의 언어에서 찾은 감정의 의미와 어원을 소개한다. 각 단어마다 다정한 에세이와 문장,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곁들여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거창한 심리 치료서가 아니기에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씩 감정의 단어를 되찾는 동안 무뎌졌던 마음은 조금씩 또렷해지고, 같은 슬픔과 불안도 이름을 알면 다르게 안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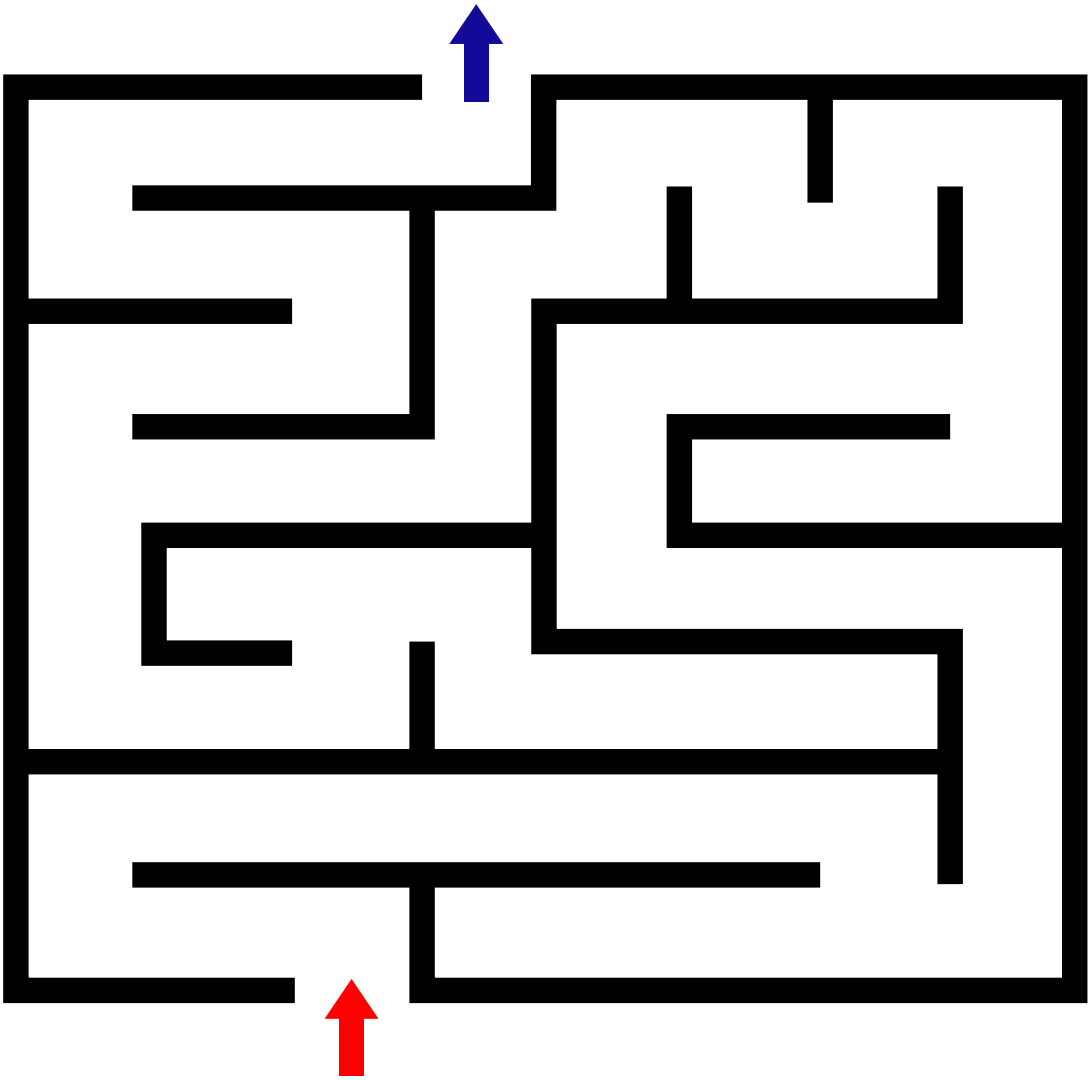
한국한센총연합회와
똑똑한 두뇌 운동하고, 치매를 예방해요!

표 안의 그림을 잘 보고, 같은 그림 3개가 나란히 연결된 것을 찾아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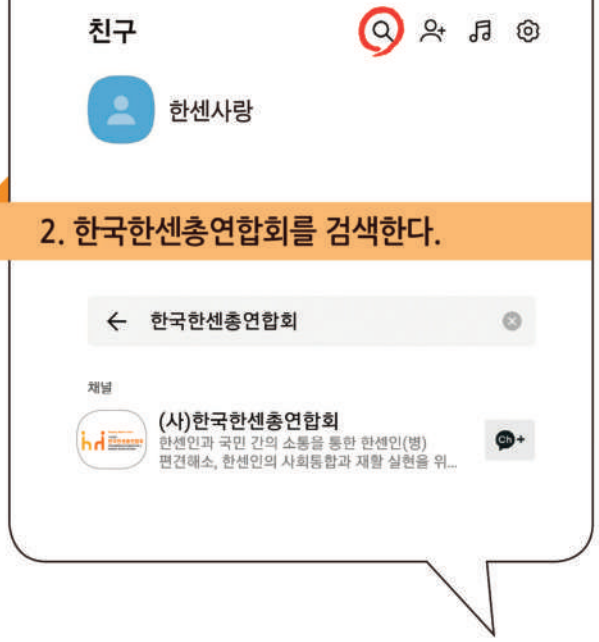
출발점에서 시작해 길을 따라가며 도착점까지 찾아보세요!



총연합회 카카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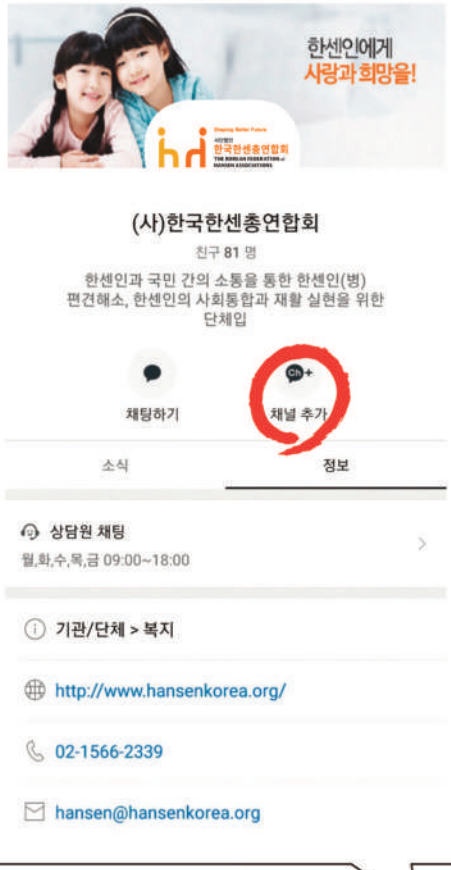
+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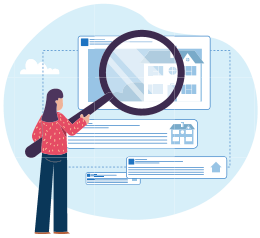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센 게시판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한센인 관련 정책 · 학술 · 역사 자료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기타 「한센」 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 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본부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중앙회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 · 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15-5501	(032)515-5504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2-3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 802-1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 · 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 · 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 · 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센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센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 사례관리
- 인권개선운동
-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 지역사회 기여 실천
-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 1:1 개별 서비스
- 요양·보호·여가 지원
-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하나하나의 나눔이 모여
더큰 베품과 사랑이 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늘 여러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질병관리청